

“네팔의 어린이들은 지금”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구호에 박차

“삶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네팔 속담

네팔 대지진의 피해가 지금까지 사망자 7,250명, 부상자 14,122명(현지시간 5월 3일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101세 노인의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월드비전은 대지진이 일어난 지 11일째 되는 5월 5일(어린이날)을 맞아, 지진 피해 지역에서 조사 및 긴급구호활동 중에 만난 네팔 어린이들의 이야기와 간절한 바람을 전해왔다. UN 발표에 따르면, 94만 명의 아동이 지진으로 인해 부모를 잃는 등 긴급구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르카에서 6시간을 차로 가야 도착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11세 칼파나, 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던 중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떨어졌고,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 집이 무너져서 다리가 잔재에 깔려 버렸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잔재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마을의 집 대부분은 무너져서, 구급차가 도착하고 고르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총 사흘의 시간이 걸렸다. 환자가 20만여 명이나 되지만 병원은 50개의 침상만 있을 뿐, 아이는 간신히 병원 바닥에 침상을 마련하여 회복 중에 있다.

현재까지 2백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16개의 이재민 캠프가 열린 가운데, 월드비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위한 아동쉼터(Child Friendly Space)를 운영 중이다. 카트만두 월드비전 아동쉼터에서 만난 12살 라제쉬는 땅이 흔들리던 그 때를 떠올리면 너무 무섭다고 한다. 지진의 충격으로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다.

“아주 나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즐거워

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라제쉬, 12세)

월드비전은 지난 열흘간 재난지역에 시급한 방수포·담요 등 구호 물자를 전달함과 함께, 아이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치료를 위한 아동쉼터를 열었다. 카트만두를 시작으로 라릿푸르, 박타푸르 지역에 현재 총 7곳의 아동쉼터가 열렸으며, 앞으로 20곳까지 확대 개소할 예정이다.

네팔지진피해지역 현장을 다녀온 강도욱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은 “건물이 완전히 사라졌고, 길도 없어져 버렸다. 밟고 있는 잔해 밑에 수백 명이 있다는 사실에 무력함도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시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쉼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이·심리 치료를 통해 속히 아이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된 아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네팔의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피해지역에서 그 동안 사회개발사업을 해 오던 굿네이버스도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지진의 주요 피해 지역인 고르카와 카스키 지역에서 10년째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다. 1대1 결연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는 어린이도 2천여 명이며 지역개발사업의 혜택은 2만5천여 명이 누리고 있었다. 굿네이버스는 28일 오후 2시 고르카 지역의 피남에서 전체 주민 200가구에 비상식량과 구호키트, 방수포, 담요를 배분했다. 다행히 피남에 거주하는 굿네이버스 결연 어린이 165명은 전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굿네이버스는 정부 및 주민 관계자들과 2차 물품 배분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선 5천 개 물품을 피해 지역에 헬리콥터 등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대웅 기자



시아(9세)가 살고 있는 박타푸르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다. 이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려는 기독교 구호단체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월드비전

“가정 폭력 안 돼! 교회도 나서야”

“가정 폭력 문제를 초기에 대처하게 되는 중요한 곳 바로 911, 가정 폭력 상담소, 그리고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가정 폭력의 위기,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5월 4일 개최한 목회자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다나 에드미스톤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에드미스톤 검사는 1991년부터 검찰청에서 근무해 현재는 가정 폭력 분야 디렉터를 맡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정 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자신이 만났던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고하며 목회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패널 토의에 앞서 기조강연을 맡

은 손인식 목사도 가정 폭력 해결에 있어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목사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가해, 언어 폭력, 인격 살인을 교회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교회 안에 성경적이며 건강한 가정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정을 최우선 순위로 했을 때 손해 본 것이 없다”며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교회에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성도를 대상으로 한 부부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부부상을 알려주고 좋은 사례들을 간증하게 해 도전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드미스톤 검사, LA 경찰청의 정 김 형사, LA법률보호재단의 조앤 리 변호사가 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한 후에는 고태형 목사, 박세현 목사, 김인철 목사, 이종태 목사 등이 목회자 패널 토의를 통해 교회와 가정 폭력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목회자를 포함, 150여 명이 참석해 이 문제에 관한 한인교회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치유 모임, 각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213-389-6755

김준형 기자



북한 위해 통곡의 기도를

남기주 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북한의 구원과 영적 해방을 위한 통곡기도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는 13일 달라스 빛내리교회를 시작으로 동부를 거쳐 서부 지역까지 ‘그날까지선교연합’ 주최로 북한의 구원을 위한 기도회가 이뤄진다. 김인식, 송정명, 박희민, 손인식 목사가 이 기도회에서 관해 소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증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파이어 크루세이드가 나침반교회에서 3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나성영락교회 안나장학회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1만 달러를 기부했다. 사진 좌측 다섯번째부터 이상명 총장, 김경진 목사, 정화순 회장.

찬양과 말씀, 기도로 성령 임재를 체험하라

3세대 함께 한 파이어 크루세이드

명불허전(名不虛傳)이었다. 하늘을 여는 찬양, 마음을 찌르는 말씀, 애통하는 기도가 있는 성령 집회 파이어 크루세이드가 지난 25일 나침반교회에서 열렸다. 1년에 2차례씩 교회를 순회하며 열리던 이 집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간증들이 나오면서 요즘은 한 달에 1번씩 집회가 열린다. 여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성도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오직 찬양, 말씀, 기도를 위해 모인다.

특별히 이번 나침반교회 집회는 3세대가 함께 하는 집회로 구성됐다. 그동안은 1세, 1.5세 청년들이 집회의 주를 이루고 그 청년들과 함께 부모 세대가 참여했는데 이번 집회에는 2세대도 참여한 것이다.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집회는 곧 이번 집회의 강사 김기동 목사(총만교회, OC교협회장)의 설교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결었네 뛰었네 찬양했네(행3:1-10)”란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했다.

그는 “처음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당시, 현실의 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14년간 최선을 다해 사역할 수 있었다”면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동행하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파이어 크루세이드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기도회가 정기정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다. 1세, 1.5세, 2세가 하나되어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 집회 중에는 한인 외에 타민족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기도 후에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인 2세 청소년 문화사역단체 갓스 이미지가 찬양 공연을 선사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나성영락 안나장학회 미주장신에 1만 달러 쾌척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나성영락교회 산하 안나장학회가 1만 달러 후원금을 23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미주장신의 이상명 총장, 나성영락의 김경진 담임목사, 안나장학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경진 목사는 “신학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인데 신실한 주의 종이 참으로 필요한 때다. 미주장신이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인재 양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안나장학회 정화순 회장은 “미주장신은 본 교회에서 시작된 학교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종을 배출해 왔다. 이 후원금이 미력하나마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명 총장은 “ATS 정회원 인준 및 다세대 신학 교육의 비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안나장학회의 귀한 후원금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미주장신은 나성영락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교로 현재 ABHE 정회원이며 ATS 준회원 자격을 획득한 상태다. 6대 총장 이상명 박사 취임과 함께 양질의 신학교육, 맑고 역동적인 영성 교육, 섬김의 글로벌 리더십 교육, 복음의 눈으로 세상 읽기를 위한 인문학적 교양 교육, 실제적 이중 언어 교육 등 5가지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날 전달식은 후원금 전달 외에도 신학자와 목회자, 평신도가 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장이었다. 김경진 목사는 “현대 교회의 성장이 문화화되는 추세 속에서 불신자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크다. 이에 대해 신학교에서 현장 목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도 방법론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상명 총장은 “현장에 필요한 학문을 연구, 개발하는데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목사는 “작은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평신도 지도자 교육이 어려울 수 있는데 신학교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한 안나장학회 임원들은 목회자 사모를 위한 상담과 훈련 등 학문적, 현실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학교가 처한 어려움에 관한 대화도 오고 갔다. 미국 주류신학교들도 입학생이 없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인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총장은 캘리포니아 지역 신학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또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 미주장신은 다세대 교육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미주 한인 2세대들이 미국 신학교로 진학하지만 그곳에서는 정작 한

인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를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해도 한인 1세 목회자들과의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을 쉽게 겪는다. 미주장신은 1세와 1.5세, 2세를 모두 함께 교육해 이들이 신학 교육을 받을 때부터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목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장은 이를 위해 집중적 언어 교육을 비롯해 각종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안나장학회는 1983년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이 뜻을 모아 시작했으며 크리스천위먼서비스센터라는 이름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등록돼 있으며 현재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린스턴신학교에 5만 달러, 여교역자 양성 기금 10만 달러, 북한선교사 양성 장학금 10만 달러, 북한 고아원에 2만 달러, 한동대학교에 9400달러, 평양과기대에 5만4천 달러 가량, 나성영락교회 장학부에 75만 달러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이 장학회는 오는 가을학기 대학이나 신학교에 등록하게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mikkichang@sbcglobal.net으로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PCA 한인교회협 총회 열려

신임회장에 방덕수 목사

제18차 미국장로회(PCA) 한인교회협의회(CKC) 제18차 총회 및 수련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와 뉴라이프선교회(박영배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교회여 야성을 회복하라”는 주제 아래 PCA 내 9개 한인노회 지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중에는 EM 목회자들도 약 40여 명이나 되었다.

KM과 EM이 함께 개최 예배를 드린 후, KM은 4일 동안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를 강사로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 라구나비치와 게티뮤지엄 관광 등의 일정을 소화했고 EM은 조엘 김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 민 청 목사(커버넌트펠로십교회), 빌리 박 목사(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를 강사로 집회와 세미나를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민경엽 목사에 이어 방덕수 목사(달라스 성산장로교회)가 회장에 뽑혔다.

김준형 기자



PCA-CKC 총회가 나침반교회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방덕수 목사를 뽑았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미인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j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박사과정 (한 주간, 인텐시브로 강의)
교육 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석사과정 (100% 온라인)
온라인 목회학 석사 신학연구석사 신학연구상담학석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es Emphasis)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일반 교육학 박사(Ed.D.)와 동등학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 교육학과목이수자 혹은 기독교교육학석사학위 + 신학과목이수자

목회학 박사 (D.Min.)
목회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모델 연구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온라인 목회학 석사과정 (M. Div. Online)
(온라인) 정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본교만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사이트: www.mbts.edu/ko 연락처: 816-414-3754, ks@mbts.edu

당신의 소명은 무엇인가? ILP 컨퍼런스 열려

이 조나단 · 박종렬 · 정종원 · 최경욱 목사 등 강의



ILP의 제3회 소명 컨퍼런스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 아래 27일 열렸다. 강의 중인 이 조나단 목사.

당신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놓고 4명의 개성있는 목회자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미주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ILP(I Love Pastor)의 제3회 소명 컨퍼런스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 아래 27일 또감사선교교회에서 개최됐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이 조나단 목사(하나크리스천센터), 박종렬 목사(서울 조이어스교회), 정종원 목사(아이엠교회),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가 각각 1시간씩 강의를 했다.

이 조나단 목사의 강의는 "외판길"이라고 요약된다. 이 목사는 17년 전 LA 한인타운에 문화 목회를 표방하며 하나크리스천센터를 열었다. 평범한 교회를 거부하는 1.5세, 2세 20대 청년들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였다. 음악,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문화 사역을 하며 청년들을 전도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교회로 보낸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직분도 없고 당연히 당회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나 직원도 없다. 교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도 없이 누구든지 오고 또 누구든지 떠날 수 있는 구조다. 그는 하나크리스천센터의 이런 스타일을 하나의 목회 모델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그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일 뿐이다.

어려움도 많았다. 일단 단순히 통계로만 보면 1년에 7명씩 부흥해 현재 100명에 이르렀다. 그는 "말하지도 않고 부흥하지도 않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자비함을 위해 투쟁을 뛰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일반적인 교회와의 통합 유혹 등 고

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개성 있는 목회 고집을 꺾지 않고 17년을 달려 왔다. 그러면서 "요즘은 무신론자나 동성애자들을 전도하는 교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등 소외된 분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서 "여러분들도 개성 있는 목회로 개성있는 교회를 세워 보라"고 권유하며 강의를 마쳤다.

이 목사의 강의 후에는 조이어스교회 박종렬 목사가 강의했다. 그의 강의는 "기도의 부흥"이 주제였다. 한국 온누리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러브 소나타 등 대형 기획들을 성공적으로 이뤄온 그가 개척한 조이어스교회는 현재 약 700여 명이 출석하는 중형교회가 됐다. 그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다.

박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일이 되는 대형교회에 있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개척교회를 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에 익숙하지만 사실 누구도 찾지 않는 틈새가 반드시 있다. 이 조나단 목사처럼 그 틈새를 본 사람이 그 틈새를 위해 목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본 틈새는 3,40대 남성이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바쁘고 왕성하지만 미래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세대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삶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고 기도만이 답이었다. 박 목사는 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중보기도 하자고 제안했다. 한 달에 4시간이면 긴 시간이 아니기에 그들도 선뜻 참여했다. 박 목사는 "그러나 한 달에 4



박종렬 목사가 조이어스교회의 기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시간이 이들의 삶 전체를 바꿀 힘이 있었다"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영적 충동을 경험한 그들은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성찰하며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이어스교회의 기도 사역을 소개하며 목회자들이 교회에 기도 사역을 정착시키길 권했다.

다음 강사 정종원 목사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강의에서 목회의 소명에 관해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경욱 목사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리더"라는 강의를 전하며 목회자들에게 선교적 도전을 던졌다. 그가 시무하는 또감사교회는 재정의 80-90%를 선교에 사용하며 모든 성도가 선교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창립 계기 자체가 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IMF 이후 후원이 줄어들어 사역에 위기를 맞이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후원 기도회를 드린다 이것이 교회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선교는 옵션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면서 "교회는 자리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선교할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ILP는 13년 전 한국과 미국에서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됐다. 한국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세미나와 관광 등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는 사역을 해 왔다. 또 이와는 반대로 지난 2년 전부터는 미주 목회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섬기는 프로그램도 시작했고 한국 목회자 자녀와 사모를 각각 미주로 초청해 섬기는 사역도 이뤄진다. 김준형 기자

"美 최고 기독교 학교 목표로"

한인이 세운 GVCS 미주 캠퍼스 개교



GVCS 미주 캠퍼스 개교를 기념해 교육 컨퍼런스가 열렸다.

글로벌선진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가 미주 캠퍼스를 개교하며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교육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컨퍼런스에는 한인 교계 지도자,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주강사는 GVCS의 설립이사장 남진석 목사와 함께 코칭전문가 서우경 박사, 페이스 김 박사(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 교수), 세계CCC 본부에서 사역 중인 김향숙 사모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미국의 현 교육 정책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선교사 자녀 교육, 청소년 멘토링, 다문화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대

안학교로 알려진 GVCS는 10년 전 설립됐다. 이 학교는 충청북도 음성, 경상북도 문경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한국 정부로부터 정규 중등학교로 인가받았다. 현 재학생은 약 1000명이며 최근 졸업생 다수가 미국의 다트머스대, 코넬대, UC 버클리, UCLA, 워싱턴대, 뉴욕대 등을 비롯한 해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

펜실베이니아 주 챔버스버그에 위치한 미주 캠퍼스는 185에이커 대지에 80여 개 건물, 2개의 실내 체육관, 수영장, 최신 기숙사 등 미국의 명문 기숙학교들을 모델로 삼고

문의) 717-830-9356



기감 미주연회가 클레어몬트신학교에서 통합연회를 열었다.

기감 미주연회, 통합연회로 극적 대화합 이뤄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가 대화합을 이뤘다. 그동안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으로 양분돼 갈라졌던 미주특별연회는 지난 29일과 30일 클레어몬트신학교에서 통합연회를 열었다.

이 연회에는 전용재 감독회장이 참석해 주재했다. 전 감독회장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되었던 연회가 극적으로 상생을 도모하며 통합연회를 이루었다"면서 "법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자"고 했다.

연회에서는 개회예배와 성찬식 후 회집을 시작해 양측 10인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무사히 통과시키고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지방경계조정안도 큰 문제 없이 가결됐다. 연회 기간 중에는 고 흥인원 목사, 김기한 목사, 하헌용 목사에 대한 추모예배에 이어 11명의 목사 안수식도 거행됐다. 또 메트로시카고교회의 전영규 목사가 은퇴하고 나성정 동교회 주영호 목사, 하시엔다한인교회 이재석 목사가 성역 30주년을 맞아 회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인사: 1701 W Orangefor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11월) - 서부인명일부 T.213.453.6624 (이리할마영일부)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100% 천연성분

FDA IND임상

미국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입니다.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초기 한국인의 기독교 수용 형태(I)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일반적으로 세계 교회는 한국 개신교 선교를 ‘근대 선교의 기적’이라 말한다. 선교사 로즈(H. A. Rhodes)는 개신교가 “조선에서 만큼 급속도로 발전된 일은 어떤 나라에서든지 보기 드문 일이다. 조선의 40년간 신기독교[개신교]의 통계표는 다른 나라의 1백년간의 그것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고한다”고 경탄했다.

언더우드는 선교 초기부터 낮은 계층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했다. 그러나 양반 계급은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들은 국가적 제전(祭典)에 나가 사당에 절하고 조상숭배 예식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관습상 이들은 소실이나 첩을 두세 명씩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적격은 난해한 일이었다. 따라서 양반 계층 전도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가난과 고통으로 찌든 삶이어서 그들 삶에 적은 도움만 되면 새로운 신앙 접수가 반증보다 비교적 전도가 쉬운 일반 서민, 농민, 노동자, 천민 등 하층민에 전도의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와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기관이었고, 교회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가르침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쉽게 수용한 것은 확실한 기독교 진리를 깨달아서라기보다 현실 이익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백정준 박사는 “초기 입교인들 회심 동기는 어떤 점에서 보면 이기적이었다.”고 단정했다. 즉 서양 선교사와 친해져 물질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직접 동기가 되어, 국난(國難)이나 역질(疫疾), 흉년 등 재난이 닥쳤을 때 교회로 몰려오는 군중이 많았다. 또한, 탐관오리의 등쌀에 못 이겨 외국인의 보호를 받으려는 동기가 없었다고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선교사의 기록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탐욕스런 사람, 기회주의자, 정치적 개혁가, 모험가, 진짜 악당들이, 선교사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어드 박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알곡을 찾고 있었다. 그는 많은 실망을 했다.”

이 증거로 1895년 청·일 전쟁 전후와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정미조약, 1910년 한일병탄 등 어려운 시절에 교인 수가 급증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하층민 입교와 관계하여 간과할 수 없는 점 하나는 백정들의 입교였다. 백정들은 호적도 없고 의관(衣冠) 착용을 할 수도 없었고, 천민 이외 다른 평민과 혼인도 할 수 없었다. 북장로교회 선교사 무어(S. Moore)는 백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의 관철동(貫鐵洞) 백정부락에서 그들 신분 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썼다. 그는 국왕에게 백정도 갖을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백정 박성춘(朴成春)은 장로교회에 입교한 후 내부(內部)에 신원(伸冤)청원을 올려 평민이 됐다. 그의 아들 박서양(朴瑞陽)은 후에 세브란스의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뛰어난 외과의사가 됐다. 백정의 아들이 의과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는 일은 유교적 문화 배경의 조선왕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

이 일 후, 많은 백정이 교회로 몰려왔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양반과 같은 위치에서 ‘형제’라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어의 노력으로 수백 명 백정이 세례를 받았으나, 시련이 닥쳐오자 그들 대부분은 교회를 등지고 말았다. 이기적 동기로 입교한 사람은 결국 확실한 교인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최초 조직교회로 출발한 새문안교회 초기 역사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영성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당시 한국에 갓 온 마태 선교사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 엘린우드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 교인 수는 90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중 상당수는 제가 3년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고 나서 한 번도 나

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후에도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이 허다합니다.”라 썼다. 심지어 이 교회에서 최초로 장로로 선출된 두 사람이 함께 교회로부터 치리를 받았고, 그 중 한 사람은 출교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 최초의 장로 두 사람이 모두 타락하고 말았으니, 초기 교회 교인들의 영성한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이다.

이런 사실로 보아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서민의 기독교 입문은 단순히 ‘이기적’이라 볼 수 있고,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선교부 총무 브라운(Arthur Brown)이 지적한 것과 같이 ‘감정적’(emotional)이란 지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견해는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 분석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가 일제에 넘어가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기독교 입문은 단순히 생명과 재산의 안전(安全)과 안정(安定)을 구하는 데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한 일본인 신문기자는 한국인들의 기독교 입신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20개 항목을 열거했다. “단일 한국 기독교 신자에게 그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물어 본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한둘을 들 것이다. 1. 믿음을 권유한 사람 때문에 2. 설탕을 준 다기에 3. 약을 준 다기에 4. 돈을 준 다기에 5. 베풀는 것보다 더 낫다기에 6. 내 부모가 믿기 때문에 7. 세도를 부리려고 8. 세무 관리의 압력 피하기 위하여 9. 지방 장관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10. 보부상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11. 사설 정보원을 피하기 위하여 12. 세금을 물지 않으려고 13.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번거롭게 하여 14. 잡혀 가지 않으려고 15. 처벌을 받지 않고도 독질할 수 있을 까 하여 16. 동학당이 되었던 과거를 벗기 위하여 17. 일 아니하고 놀 수 있을 까 하여 18. 예쁜 여성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9. 천당을 구경할 수 있 다기에 20. 구름 위에 앉아 사해를 두루 구경할 기회가 생길까 하여 등”이라 규정했다.

이 분석은 물론 근거가 희박한, 다분히 다수 한국인이 교인이 되는 일을 힐난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여겨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구라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에 열거한 이유로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창립 27주년을 기념하며 컴패션 주일예배를 드렸다. 성도들이 예배 후 컴패션 후원 부스를 방문해 후원을 약속하고 있다.

“1,137명 어린이 향한 놀라운 기적”

남가주사랑의교회 27주년 기념하며 컴패션 주일예배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지난 19일 교회 창립 27주년 예배를 컴패션 주일예배로 드리면서 이날 하루 만에 1천137명의 어린이와 결연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컴패션 예배는 컴패션의 국제적 구제 사역을 홍보하면서 성도들이 제3세계의 어린이들과 1대 1 결연을 맺어 후원하게 하는 행사다.

이날 남가주사랑의교회는 한어권 예배를 통해 998명, 영어권 예배를 통해 139명이 새롭게 후원을 약속했다. 특히 한어권 예배에서는 컴패션의 열렬한 후원자인 배우 차인표 씨가 컴패션 사역에 관한 간증을 전했다. 영어권 예배에서는 컴패션을 통해 후원을 받았던 케냐 출신의 벤 음왕기 씨가 자신의 경험을 간증했다. 그는 컴패션 장학금이 되어 콜로라도대학으로 유학했으며 현재 물리학 박사 과정 중이다.

이날 후원자 중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컴패션의 후원을 받고 성장했다며 그 빛을 갖기 위해 약속한다는 사람도 있어 큰 감동을 주었다.

노창수 담임목사는 “그동안 교회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까지 키워 나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 어린이와 1대 1 결연으로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것뿐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현재 전세계 어린이 135만 명을 돕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컴패션은 1952년 한국 전쟁 당시 고아들의 참상을 목격한 에버렛 스완슨 목사에 의해 시작됐다. 한국은 이때부터 41년간 컴패션의 도움으로 1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구호를 받았으며 2003년 11월 한국 컴패션이 설립되면서 “구호받던 나라”에서 “구호하는 나라”로 변화됐다.

김준형 기자

남상국 목사 “낯놓고 기억자...” 저서 출판

남상국 목사(오픈바이블교회)가 ‘낯 놓고 기억자 몰라도 이해되는 계시록’이란 책을 출간해 5월 17일(주일) 오후 5시 남가주가스펠교회(남진석 목사, 810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에

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다소 복잡한 요한계시록을 그림을 이용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이 책의 특징으로 책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및 구제봉사 단체에 기부된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 1. 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전도물티슈
 - 볼펜
- 2. 전도용 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 PEAC
-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 예수 부활 하셨다.
 -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시디앨범**
- 5. 환영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junimedia@gmail.com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Call : 323.265.0244 junimedia.com

개혁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구두변론 주요 쟁점은?

결혼 정의 자체 개정돼야 對 결혼 정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전 미국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할지 여부를 다루는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Oral Argument)이 4월 28일 열렸다. 이번 구두변론의 두 가지 주제는 “동성결혼이 헌법상 권리로 보장받아야 하는가”와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가”로 요약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이 수정헌법 제14조인 만큼,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과 자유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다. 친동성에 측은 “결혼할 자유, 그 중에서도 어떤 성별을 가진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의 자유가 개인에게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고, 반동성에 측은 동일하게 “결혼할 자유는 개인에게 부여돼 있기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민이 아닌 연방법원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초에는 친동성에 측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문제를 놓고,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 간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식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날 친동성에 측을 대표한 메리 보나우토 변호사는 변론 시작부터 결혼의 정의 자체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펼쳐갔다. 보나우토 변호사는 “동성 커플이 가족 관계를 구성할 자유를 동일하게 누리는 것”을 요구하며 “결혼할지, 또 누구와 결혼할 지는 개인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근거 희박... 결혼 정의 변경은 시기상조

그러나 보수적 대법관들은 동성결혼의 역사적 근거가 희박함을 우려했다.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전통적 결혼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이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잘 안다’고 말하는게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변론은 “동성결혼에 역사적·사회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이 정부에 의해 제어된다고 주장하지만, 칼라하리 사람들이나 고대인들은 정부가 없었지만 결혼을 남녀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했다”며 전통적 결혼관의 역사성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 이번 변론 중 그는 “동성 커플도 결혼에 대한 ‘숭고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헌법상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분석된다.

새뮤얼 엘리트 대법관도 “20세기 말까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나 문화권은 없었던 것으로 알

고 있다. 이 사실에서 ‘그런 국가나 문화권들이 모두 결혼을 그렇게(전통적 관점을 지칭) 정의했던,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등, 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엘리트 대법관은 “동성애가 만연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도 결혼의 개념을 이성 간에만 적용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토니 스캘리아 대법관도 “다른 사회도 2001년(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해)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 보고 결정하란 것인가”라고 물었다.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도 “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이 결혼 제도에 해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2013년 결혼보호법 심리당시에도 친동성에 측은 결혼의 정의 변경을 시도했으나, 대법관들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견지했었다.

중혼과 종교 자유 침해 등 현실적 문제 우려

결혼의 정의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 발생할 파장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엘리트 대법관은 “우리가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했을 때, 두 남성과 두 여성이 함께 결혼한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보나우토 변호사의 주장처럼 누구와 결혼할지를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라면, 왜 한 사람과만 결혼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보나우토 변호사는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을 결혼이라 하지 않는다”면서 “결혼은 두 사람의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나는 많은 시민들이 종교적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헌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동성결혼이 헌법에 명시되면 정부의 인정을 받는 성직자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자 보나우토 변호사는 “오늘날까지 어떤 성직자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주례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 그것은 보호된다”고 말했지만, 스캘리아 대법관의 의견은 달랐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지금까지 우리는 동성결혼에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헌법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그



연방대법원이 미국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어게 될 판결을 오는 6월 말 내리게 된다. © Roman Boed (www.flickr.com · CC)

종교 자유 침해, 가정 파괴 현상 등 집중 논쟁

렇게 (주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나우토 변호사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종교 자유 조항으로 인해 보호된다”고 주장했지만, 스캘리아 대법관은 “나중에 헌법을 위배할 사람을 (정부의 인정을 받는 성직자) 임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정 제도에 있어서 이성결혼의 중요성 강조돼

이후 반동성에 측을 대표한 존 버시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아니라 누가 정의할 지에 대한 것”이라 말했다. 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36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됐지만, 오직 3개의 주만이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8개 주는 주의회에 의해 간접적으로 합법화됐지만, 나머지 25개는 전부 법원에 판결로 이뤄졌다. 워싱턴DC도 연방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이 확정됐다.

변론에서 버시 변호사는 전통적 결혼을 출산(Procreation)의 관점으로 풀어갔다. 그는 전통적 결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만약 결혼의 정의를 바꾸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혼외자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결혼의 정의가 변경되면 이성결혼이 줄어들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진보적인 법관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출산 중심의 시각을 가진 주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주가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출산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

겐 결혼증명서를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견 헌법에 부합되는가”라고 물었다. 올해 82세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70세 커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동성결혼 금지법이 성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 지향성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예를 들어 수(Sue)도 톰(Tom)도 조(Joe)를 사랑하는데, 수는 조와 결혼할 수 있지만 톰은 성별로 인해 할 수 없다. 왜 이런 사실이 성적 차별에 관한 솔직한 질문이 될 수 없는가”라고 했다.

다른 주의 동성결혼 인정은 각 주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두 번째는 각 주가 다른 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연방법과 주법에 관한 논쟁으로, 현재는 결혼법이 각 주에 귀속돼 있기에,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다처 · 조혼 · 근친혼도 허용?

친동성에 측에서는 더글라스 홀워드-드리메이어 변호사, 반대 쪽에서는 조셉 웨일런 변호사가 나왔다. 홀워드-드리메이어 변호사는 “기업이 한 주의 법에 의해 설립되면, 그 기업은 다른 주에서도 존재한다. 가정도 그렇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 대해 대법관들은 우려를 표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이 먼저 “해당 주에서 불법이라 해도 그것이 다른 주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자, 그는 “그렇다”

고 답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결혼한 사람의 결혼도 허락해야 하는가”라고 즉각 되물었고, 엘리트 대법관은 “만약 어떤 주에서 12세 소녀가 결혼했다면, 다른 주에서도 그 결혼을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소냐 소도메요르 대법관은 근친혼에 관해 물었다.

다른 주에서의 이혼은 인정되는데 결혼만 안 된다면?

다음으로 웨일런 변호사는 “수정헌법 14조는 전통적 결혼법을 가진 주가 동성결혼을 허락한 주의 결혼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각 주가 다른 주의 법을 거부할 권한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자, 긴스버그 대법관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혼은 다른 주에서도 인정이 되는데 왜 결혼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묻기도 했다.

대법원장인 로버츠 대법관은 심의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문제에 관해 투표했을 때와 법원에 의해 강제되었을 때 매우 다르게 느낀다”며 주민 투표로 인한 동성결혼 합법화와 법원에 의한 합법화의 차이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각 주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6월 말 내리릴 예정이다. 물론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 여부와 관계 없이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각 주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굳어지게 된다.

김준형 기자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찰리 정

PH 푸엔테힐스 현대 Tel. (213)276-8959(찰리 정)
Puente Hills Hyundai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몽족 청년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결단하고 있다.

한인교회 연합해 미국 내 몽족 청년들 선교

라오스와 태국 국경에서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몽족의 자녀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몽족 선교행사가 산타모니카한인교회(김경렬 목사)와 소망장로교회(성요셉 목사)에서 5월 2일 열렸다.

먼저 산타모니카한인교회에서 진행된 예배에서는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결단한 몽족 청년들이 김우영 사모의 인도로 함께 손을 들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란 찬양을 함께 불러 큰 감동을 주었다.

예배 후에는 산타모니카 바닷가로 장소 옮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소

망장로교회에서 식사하고 간증한 후, 장학금 수여식을 했다.

평소 청년들에게 "까마귀를 보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까마귀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김경렬 목사는 지난 5년간 산타모니카 지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삶으로 가르쳐 왔다. 이 교회 출신 청년들은 까마귀선교회를 조직해 각자의 심일조로 한국 내 어려운 교회 14곳을 돕고 있으며 새벽마다 산타모니카 지역 노인 아파트를 다니며 어르신들과 함께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다.

LA기독교방송 "여보 사랑해요" 최우수상

WCBA 방송대상 5년 연속 수상 기록

LA미주기독교방송(대표 남철우 목사)이 지난달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제20차 총회에서 "여보 사랑해요"란 작품으로 라디오 부문 방송대상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여보 사랑해요"는 국제결혼한 미국 내 한인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경험자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이 문제를 공공적 차원에서 짚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심사위원들은 "한국에서도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하면서, 미주와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이슈화 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 방송대상은 국내외 52개 회원 방송사의 기독교방송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LA미주기독교방송은 금번 제5회 방송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제1회 "휠체어 사랑 20년", 제2회 "훈민정음의 비밀", 제3회 "LA 각설이 세 자매의 손에 손잡고", 제4회 "인연, 만남, 그리고 가족"까지 5회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LA미주기독교방송은 지난 1998년 남철우 목사와 남태순 전도사에 의해 설립돼 상업광고와 모금 활동 없이 AM과 FM 2개의 라디오 채널을 통해 지난 17년간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24시간 종일 방송하고 있다.



영아티스트 오케스트라가 데뷔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영아티스트 데뷔, 콘서트 수익금은 시리아 난민 선교

지난 4월 23일 토랜스 시빅센터 제임스암스트롱극장에서 영아티스트 오케스트라의 데뷔 콘서트가 열렸다. 이 오케스트라는 주님세운교회가 지역 사회를 음악으로 섬기기 위해 전적으로 후원해 탄생했다. 이날 콘서트에도 타민족과 비기독교인들까지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젯사운드대학교의 박주은 객원교수가 쇼팽의 Ballade No. 4를 독주하고 모짜르트의 Concerto No. 23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소프라노 골다 버크만도 찬조 출연해 'Quando men vo'를 독창했다.

영아티스트 오케스트라는 약 4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플룻, 트럼펫, 오보에, 콘트라 베이스, 바순, 호른, 트롬본, 피아노, 드럼 등이 참여하고 있다.

OC교협-CTS, 박공서 목사 초청 요한계시록 세미나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김기동 회장)와 CTS America(대표 김종철)가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새부전장로교회(예



박공서 목사

장 대신) 박공서 목사를 초청해 5월 12일, 13일 각각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미주비전교회에서 개최한다. 주최측은 이 세미나에 관해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짚어줌으로써 평범한 일상 속의 영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성

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설명했다. 세미나 참가비는 없으며 목회자, 신학생 및 평신도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공서 목사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다수의 영성 세미나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인도한 바 있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특별한 기적을 만드나>, 소설 <사냥말>, 시집<넙>, <생활 영성 매뉴얼>, <힐링 큐티>, <이야기 요한계시록> 등을 저술했다. 참가 문의) 562-565-2234 장소)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교회 및 선교교회

- LA 지역**
 -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churhc.com
 -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 진우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믿음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 믿음 중심 생활 /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승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 김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제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전)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 현연성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 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F.(323)932-0788 / kuhinoh@hanmail.net
 -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ring), 기르며(Maturing)맞선전(L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지평을 넓혀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해내라,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요섭, 이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 조인수 담임목사**
씨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lakwpc.org
 -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비전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믿음을 깨우고, 이념이 생략된 채, 이념이 정통하며, 선교영역은 온통이 그리스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213)386-2233 / www.LASara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5: 45)
1. 민족을 넘어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사우스베이 지역

김진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김배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밸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최희철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사랑나눔선교회 창립예배 후 기념촬영

“힘든 이웃에게 사랑 나눠요!”

사랑나눔선교회(대표 이훈준 목사)가 지난 26일 한미장로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사랑나눔 실천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훈준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김남을 목사의 대표기도, 고주모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박헌성 목사가 누가복음 10장 36-37절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다. 사랑을 나누는 일에 크리스천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철균 목사 가족의 특별찬양, 진석호 목사의 헌금기도 후에 박효우 목사와 백지영 목사가 각각 축사와 권면을 전했다.

박 목사는 “신학교 동기인 이훈준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우한 이웃과 그늘진 곳을 돌보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를 전한 이훈준 목사는 “17년 전 샌버나디노에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나눔 사역을 시작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는 실천의 사명을 다하겠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랑나눔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국내외 선교지와 어려운 교회를 돕고, 가난한 가정 자녀들의 학비 보조 등 선한 일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현재 이사장과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장과 총무 서기, 회계 등의 임원들이 사역을 감당한다. 선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한달에 10불 이상을 도네이션하는 정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951-966-9191



LA온하늘교회가 설립된 지 3주년을 맞이해 예배를 드리고 음악회를 개최했다.

LA온하늘교회 설립 3주년 예배 및 음악회

설교 박성민 목사, 축하음악회 등으로 성황리에 열려

LA온하늘교회(담임 연제선 목사)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음악회가 26일(주일) 오후 5시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연제선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는 감사예배, 2부는 음악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에서 박성민 목사(아주사피사피대학교 교수)는 “하나님 먼저”(마:6:31-33)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다. LA 온하늘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다. 지난 3년간 묵묵히 자리했던 지역을 섬겨 온 이 교회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며 “하나 살리기 위해 그토록 귀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 및 두려움은 인간 누구나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를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설립 3주년 축하 설교를 대신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교회발자취를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됐다. 이어 이태근 목사(남가주빛과소금교회)의 헌금기도를 끝으로 1부 감사예배가 마무리됐다.

그레이스미션콰이어(지휘 테너 오위영)의 ‘주 날 인도하시네’ 합창으로 시작된 2부는 음악회로 꾸며졌다. 메조소프라노 조지영의 ‘하나님의 은혜, 피터 백의 바이올린 독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재즈 뮤지션 ‘Audience of one’의 찬양 무대는 보기 드문 감동을 선사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편, LA온하늘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선교에서만 열정을 아끼지 않는 교회 중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40가정 개척교회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현재, 인도 등지에 7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의 복음화에 열정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다.

주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전화: 818-983-9024

이영인 기자

전도는 어렵고 힘든 것 아닌, 쉽고 재밌는 것!

미주 예심전도대학(대표 박용덕 목사)에서 제11기생을 모집한다. 5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에 개강하는 이번 전도대학은 총 13주에 걸쳐 진행되며 장소는 남가주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다. 일석이조 전도법, 순간포착 전도법, 10초 메시지 전도법 등 다양하고 흥미있는 전

도 방법 등을 소개하고 행복한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게 돕는다. 목회자, 사모, 전도사, 평신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50불이다. 문의) 714-401-9874



박용덕 목사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위산과다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프로모션 A	프로모션 B	프로모션 C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긴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긴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도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을,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는데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타린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삶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께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와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LA 본점 (로데오갤러리아 아주관광 '볼내')

세리토스 직영점 (BORA 내)

“북한인권,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 나서야”

북한자유주간 중 유엔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등 국제사회가 함께하다



4월 30일 뉴욕 유엔 본부 제3회의실에서 유엔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목소리: 북한인권'에 대한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유엔 본부서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탈북자 3인-- 북한인권 참상 생생하게 증언해

유엔 미국대표부(대사 사만다 파워)가 30일 오전 10시 30분 뉴욕 유엔 본부 제3회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 북한인권'에 대한 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유엔의 토론회는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는 최종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3번째 열리는 것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각국 유엔대표와 탈북자 30여 명, 한미 인권단체 관계자들, 국제 언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북자 김조섭 씨, 조진혜 씨, 김혜숙 씨가 참석해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김혜숙 씨는 13살에 이주도 못한 채 수용소로 끌려가 하루에 16시간의 중노동 끝에 28년 만에 나온 경험을 말했다. 김혜숙 씨가 수용소에

서 나오게 됐을 때 알게 된 자신의 수감 이유는 할아버지가 월남을 했다는 것이었고 김혜숙 씨는 할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10대와 청년의 모든 시기를 아사 직전의 위기를 넘겨가며 노예 생활을 한 것을 생생하게 전했다.

김조섭 씨는 북한 내에 먹을 식량이 부족해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가 중국으로 떠나고 꽃제비가 되어 길에서 노숙하며 지냈던 시절에 대해 증언했다. 김조섭 씨는 “북한은 외부와 대화가 단절된 고립되고 매장된 나라이지만 혼자는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인 북한에 빛을 비출 수 있다”면서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죽었다. 북한 사람들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그들의 고통을 말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진혜 씨는 가난과 식량 문제로

인해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삶에 대해서 증언했다. 조진혜 씨는 “할머니가 죽기 전 했던 말이 ‘찜감자 한 개만 먹어 봤으면’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탈북자들의 증언 이후에는 유엔 각국 대표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압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 응답을 나눴다. 또 이날 탈북자들의 증언 중간에는 유엔 북한 대표부 3명이 발언권 없이 이번 토론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려 회의장에 참석한 이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사만다 파워 유엔미국대표부 대사는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원 기자

조국 통일 위한 통곡기도회

UTD-KCC 주관 美 전역 7개 도시 순회

그날까지 선교연합(UTD-KCC) 주관 2015 통곡기도회 기도행진 개최를 알리는 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웰드미션대학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단체의 국제대표인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전 담임), 공동대표인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전 담임),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 총장),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 등이 함께 하며 기도회의 목적과 일정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통곡기도회는 오는 13일 텍사스주 달라스의 빛내리교회에서 시작하여 7월에는 미 동부지역을 거쳐 9월 말 이곳 엘에이 주님의영광교회에서의 대대적인 기도운동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손인식 목사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도 70년 만이고, 동구 소련 공산정권이 무너진 것도 70년 만이고, 한반도가 분단된 지도 올해로 70년째이다”며 올해를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기대했다. 또 “조국의 통일은 독일처럼 반드시 기도를 통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도 운동은 필수이다. 그 외에도 탈북자들을 돕는 ‘빼내오기’, 북한을 지원하는 ‘퍼주기’,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흔들기’ 등의 사역을 병행해야 한다. 삼일독립운동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지대했듯이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고 했다.

송정명 목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독일 통일도 라이프치히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통일

은 정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며 하늘보좌에 상달될 통곡기도회에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민 목사는 “오늘날 민족의 모든 고난은 분단의 아픔으로부터 시작된다. 통일 문제는 이 시대의 과제다”며 “독일 통일도 미래 학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통일 문제를 위해 서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자고 했다.

김인식 목사는 “지난 2004년 목회자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통곡기도회가 이제는 교계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했다”며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랐다.

통곡기도회는 5월 13일(달라스, 빛내리교회)/5월 20일(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5월 29일(애틀랜타, 베다니장로교회)/7월 15일(워싱턴, 와싱턴중앙장로교회)/7월 19일(덴버, 덴버장로교회)/9월 16일(뉴욕, 프라미스교회)/9월 29일(로스앤젤레스, 주님의영광교회) 열린다.

한편, UTD-KCC는 지난 2004년 통곡기도회를 시작한 KCC가 확대된 국제적인 북한선교 전문단체로,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감리교회)와 임창호 목사(고신대학교 교수), 이원삼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원로)가 각각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문의는 선교본부 사무실 문성범 행정실장(949-297-3788), 또는 이메일(utdusa21@gmail.com)로 하면 된다. 이영민 기자

제12회 북한자유주간 ‘워싱턴 선언’ 남겨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열린 제12회 북한자유주간이 예배와 기도회, 탈북자 기자회견 및 북한 인권개선 토론회 등에 이어 ‘북한 해방,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북한자유주간에 참여한 미국, 한국, 일본,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협의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이제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단순

히 알릴 때가 아니라, 전 세계가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며 3대에 걸쳐 북한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워싱턴 선언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미사일 개발, 테러, 납치, 마약, 위조달러, 해외 노동착취 등의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성과 관계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타도와 자유통일이야말로 북한 문제해결의 최우선과제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북한자유주간’ 중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 북한자유 캠페인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참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참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opm Duplex	Dual Scan ADF 80opm Simplex	Emperor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Simitri with Blomax *Optional : Fax & Finisher

수잔 솔티 대표 “고통스러운 북한 자유의 길, 하나님만 의지할 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매일 한계를 느낄 정도로 힘들다고 답했다. 아무도 외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았던 북한 인권을 외치며 미국과 국제 사회의 관심을 지금의 수준으로 이끌어낸 수잔 솔티 대표의 뜻깊은 지난 행적을 볼 때 매우 의외의 대답이다. 수잔 솔티 대표는 수시로 다가오는 한계 상황에서도 맨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고 말했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일반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수잔 솔티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적으로 몰입하게 된 계기 또한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해 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가온 것이 처참한 인권유린 상황 가운데 처해진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눈물이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대거 초청됐고, 이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증언과 북한 자유를 위한 주장들은 이번 북한자유주간을 계기로 새로운 힘을 얻고 있다. 다음은 수잔 솔티 대표와의 인터뷰이다.

▶올해 북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수잔 솔티 대표는 어떠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북한 체제가 언제 무너지고 문이 열릴 것인지를 물어본다. 하지만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바로 내일이라도 문이 열릴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 내부에 많은 변화가 온 것이 사실이다. 핵심은 정보의 유희 및 정보의 유입이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왔다. 하지만 이제 탈북자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다양한 사정들을 실시간으로 듣게 됐다. 또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면서 정보뿐만 아니라 돈도 전달됐고 이것이 북한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점차 자신들의 힘든 삶의 원인이 김정은 정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자회견 중에 북한에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 북한 체제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

▷현재 위성사진으로 분석했을 때 북한에 시장으로 파악된 곳만 200곳에 이른다. 위성사진으로 분석되지 않는 내부 장마당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시장이 형성돼 있다. 벌써 북한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 당국이 시장 경제 현상을 막으려고 갖은 노력을 펼쳤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 이후에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시장경제 참여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다. 북한 정권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북한 당국이 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2000년 후반기 이후에는 왜 북한에서 더 이상의 기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200만-300만 명이 아사했을 당시에는 장마당이 없었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굶어죽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죽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와서 장사를 하며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결심과 결단력이 자신들을 살리고 있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를 '탈북자들의 행동'으로 정했다. 탈북자들이 주도하는 정보의 꾸준한 유입과 소통이야말로 현재로서 북한 자유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탈북자만

큼 북한 인권 개선에 중요한 자산은 없다. 탈북자들만큼 북한과 북한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 또 어떻게 하면 난민들을 구출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것도 탈북자들이다. 탈북자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의 활동 또한 적

은 비용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온다. 안타까운 것은 탈북자들이 딱 하나 안 가진 것이 바로 재정 지원이다. 정말 북한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탈북자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줬으면 한다. 그들은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 해 줄 것이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국방을 위해 도입하는 전투기 한 대 가격이면 북한 주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수잔 솔티 대표의 의견은?

▷북한인권 운동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한국사회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일본에서조차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한국에서만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한국 정치권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뿐만 아니라 한인 동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북한자유연합은 항상 북한 자유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없다면 북한의 자유를 말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탈북자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인권 문제에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과 관련, 이는 정치적 이슈라며 교회들이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데,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부활절을 맞아 북한에 부활절 설교 방송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정치적 문제로 여기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교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비슷하게는 예전에 탈북자들의 강제복송 사진 전시를 기획했는데 너무나 많은 미국 내 한인교회들이 참가하지 않겠다고 외면한 경험이었다. 이것은 영적 싸움으로 교회들이 북한 인권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려는 마귀의 사악한 수법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인권의 문 제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 인권을 위한 수잔 솔티 대표의 활동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교차한다.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의 이슈라고 생각한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한국 사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식을 좀 더 불러 일으키려면 탈북자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 그들이 활동하며 본인들의 상처도 치유하고 국제적인 여론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인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미국인이 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한 신앙적인 계기가 있는가?

▷'스크립춰 유니온'이라는 큐티를 1992년도에 시작했다. 그리고 94년도 혹은 95년도에 기도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달라"는 기도문이었다. 그 기도문이 마음에 박혔다. 그리고 2년 후 북한 문제를 품게 되면서 이것이 기도응답이 됐다. 처음 기도할 때는 몰랐지만, 북한 상황을 듣자마자 곧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활동이 쉽지 않은 길인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낀 순간들이 있는가?

▷사실,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올해에도 정말 너무나 힘들어 취소하려고까지 생각했을 정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생각한다. 항상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후원이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사에서 탈북자들이 했던 말은 너무도 심각한 이야기들뿐이었고, 이것에 비하면 내가 겪는 일은 아무 것도 아니다. 내가 어디에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껏 살아왔는데 너무 힘든 것만 생각했다는 것을 회개했다. 탈북자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과 북한에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일에 기쁨을 느낀다.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 발표회에서 북한제재법이 통과되면 북한 인권 개선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가?

▷현재 북한 제재를 위한 법이 하원에서는 통과됐다. 상원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북한 내부에 들어가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리아 등 다른 인권 문제들도 너무 많아서 북한제재 문제를 가장 중요 쟁점으로 놓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움직여야 한다. 주민들이 움직일 때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에 주민들에게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들을 더욱 높이고 여론을 모아서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계획이다.

▶북한 인권에 관한 교회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수잔 솔티 대표의 의견은 어떠한가?

▷북한 문제를 너무 북핵에만 집중해 온 것이 한국과 미국의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문제를 비껴갔는데, 그 결과는 북핵도 해결되지 않고 인권도 해결되지 않았다. 인권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대원 기자

.... 판결문

건강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공고합니다.

이중열	이영숙	최정래	최화열	장경무	장수자
판결 결과 시무장로직 면직 및 출교	판결 결과 시무권사직 면직 및 출교	판결 결과 시무권사직 면직 및 출교	판결 결과 안수집사직 면직 및 출교	판결 결과 명예장로직 면직 및 출교	판결 결과 장로직 면직 및 출교
판결 날짜 2015년 2월 25일	판결 날짜 2015년 2월 25일	판결 날짜 2015년 2월 25일	판결 날짜 2015년 2월 25일	판결 날짜 2015년 3월 6일	판결 날짜 2015년 3월 6일

건강한 교회 재판국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병약개발, 현 FDA임상2차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균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계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erve=\$300
 완결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열정하는 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기하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완료, 각종 인쇄, 연속복, 각종 사인(상하좌우), 책자, 연속공인내 전문
 junimedia.com

전도용품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출음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세기죽 및 영문지 선물용 장형, 실교시디앨범

전도용품 또는 영문지에게 귀책을 받았도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전도용품 \$1,000set (\$180)
 실교시디 \$1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완결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각종 행사용 및 전도용품, 영문용을 준비해 드립니다. 행사용품은 영문지까지 미국 다양한 상품과 영문지책과 무려지게 싸게합니다.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1, 101 Los Angeles, CA 90057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래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

월 북어구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리구이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자피넛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자른볶음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떡볶구이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김치구이 돈가스 치킨테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3달분 \$60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트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5th St. Carson, 9070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바울이 머물다 간 지중해 섬들
조광호 | 대한기독교서회 | 352쪽

바울은 2천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중해 지역을 중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저자는 <바울과 함께 걷는 지중해 성지순례>의 후속편으로, 키프로스, 사모트라키, 레스보스, 히오스, 사모스, 코스, 로도스 등 레반트 지역 섬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인문·역사·지리적 관점으로 섬들을 설명하고, 지중해라는 큰 틀에서 이 섬들의 위상과 특징을 탐구하고 종합적 이해를 추구한다.



묵상으로 하나된 교회
주정오 외 | CUP | 192쪽

10년 이상 전 교인이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 호주 시드니 열린문교회 이야기를 담았다. 이 교회는 말씀과 묵상, 기도의 '삼각편대'라는 목회철학에 따라 주일예배 설교부터 교회학교와 새벽기도회, 심방 설교에서 가정예배까지 모든 본문을 하나의 본문으로 삼고 있다. 한 주간 말씀 묵상을 편지 형식으로 성도들 집집마다 배달했던 묵상편지를 담은 형식이다.



죽을만큼 기록하라
찰스 피니 | 브니엘 | 224쪽

19세기의 유명 부흥사였던 저자는 당시 부흥사역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기록을 무시하는 모습을 거듭 목격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부흥하면, 오히려 성화에 관한 가르침은 더욱 소홀해진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먼저 성화의 교리에 대해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법'.



풍성한 삶을 위한 매일 고백기도
오태용 | 베다니출판사 | 200쪽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과 고백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과 풍성한 삶을 살게 돕고자 하는 책이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고백'이 왜 필요한지 성경적·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고백과 선포에 대한 영적 원리들을 쉽게 설명한다. 바울의 최고 계시인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역설한다.



REVIEW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의 스가라서 설교집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 '은혜'의 동의어는 '다시'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구약 소선지서 중 하나이자 환상과 예언으로 이뤄져 있어 난해해 보이는 스가라서를 '돌이킴'과 '세우심', '보내심' 등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설교한 <돌이키면 살아난다>를 펴냈다.

이 목사는 “무슨 일이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일이 구약에서 일어났다. 이스라

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부터 짓고자 했지만, 장벽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우선 순위를 바꿨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후,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다.

이때 쓰임받은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학개와 스가라 선지자를 팀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은 가슴을 뜨겁게 살아나게 하셨다. 학개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이고 직접적인 책망과 훈계로, 스가라 선지자는 아름다운 환상과 회복에 대한 격려로, 그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셨다.”



돌이키면 살아난다
이재훈 | 두란노 | 280쪽

이 목사는 스가라서의 감동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주제는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나, '회개하라'는 명령과 훈계뿐 아니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받아 주신다는 회복의 역사를 아름다운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회개는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심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돌이켰을 때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회개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도적인 은총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사탄은 '내가 돌이킨들 회복이 이루어질까' 하는 불신을 심어, 회개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라서를 통해, “회개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가진 우리를 양팔

을 활짝 벌려 안으실 준비가 돼 있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 이는 탕자가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달려가 입을 맞추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모습과 같다.

이재훈 목사는 이 시대 한국교회에 스가라서의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믿음에서, 회개가 시작되며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품으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

이대웅 기자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뢰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PCA-CKC Holds Fourth Annual Leadership Forum for English-Speaking Pastors

BY RACHAEL LEE

Some 40 English-speaking (EM) pastors of the Coalition of Korean Churches—a coalition of Korean churches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also known as PCA-CKC)—gathered for the PCA-CKC's fourth annual leadership forum for EM pastors, which took place in Orange County, CA. Pastors from various regions throughout the country, including Southern California, Illinois, Washington, D.C., and Georgia, were in attendance. Simultaneously, some 150 Korean-speaking (KM) pastors also gathered for the PCA-CKC KM's 18th annual meeting at the same location.

"We organized these annual gatherings to create a space where EM pastors could gather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really create this network within the presbytery," said Reverend Billy Park, the founder and senior pastor of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in Suwanee, GA.

Reverend Joel Kim from New Life Mission Church spoke on the first night on Acts, and particularly referred to the example of the Apostle Paul and his companions as an example of the need for co-laborers to effectively do the gospel work.

Reverend Min Chung, the senior pastor of Covenant Fellowship Church (CFC) in Chamapign, IL, spoke on the story of Samson during the second night, and he cautioned pastors that there are consequences to sin. He also reminded pastors of the mercy and grace that follows, and encouraged pastors that even after mistakes and failure, God can and will still use them for His kingdom.

Reverend Billy Park, the final speaker, spoke on 'Reformed Ecclesiology,' and said that when he was once asked, "What's the most

pressing issue in the church?" he answered, "The lack of ecclesiology," a term that refers to the study of the church. Specifically, Park focused on the structure of the church, and explained the reasoning behind the plurality of elders in the Presbyterian church.

"Jesus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not any teacher or pastor," Park said. "The Word is the apostolic witness of God, and the church and elders are here to guard us from thinking that we are the head."

Pastors also had opportunities to share concerns and questions during Q&A sessions which took place after each main session, during which younger pastors were able to receive advice from the older pastors in the forum. One pastor expressed that he felt out of place in both the Korean and Anglo presbytery, and asked what kind of a future Korean American pastors in the PCA should be looking forward to.

"Many of the PCA leaders are looking for young pastors to take on leadership roles," said Park, who works in the PCA as the Korean Relations Representative for the PCA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many of those young pastors are Asian Americans. We're the largest minority group in the PCA. So if we start becoming more informed, start getting familiar with the ways of the denomination, I know that there will be a lot of opportunities in the future."

To note, KM pastors sponsored the EM pastors' registration and hotel fees, and up to half of the flight costs for the pastors who came from out-of-state. Some pastors, however, expressed that they would have appreciated more time to spend with the KM pastors during the conference for more interaction and building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KM and EM leaders.



A panel of North Korean defectors shared testimonies at the United Nations on April 30 regarding human rights in the DPRK.

North Korea: The Regim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Need for Continued International Pressure

Young-Hwan Hahm, Hyung-Jin Im, Anderson Kim, and Daewon Kim contributed to this report.

As one of the most secluded and isolated regimes in the world, and as one of the nations with the most severe religious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North Korea is the subject of attention for many organizations, events, and movements all over the world.

Of those, one of the most grand-scale events centered on the issues involving North Korea is the annual North Korea Freedom Week (NKF), hosted by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The event features North Korean defector delegates, Congressional hearings, reports, panels, protests, and other events that shar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statu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condition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live in.

This year's NKF, which took place from April 26 to May 2, focused on the changes and improvements that have been progressing within the country recently, and the actions that are still need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rther the progress toward free-

dom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nd reunification of Korea.

One of the major points of progress was information flow, according to Suzanne Scholte, the chairman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hard to censor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country, but these days, there are so many refugees, and through them, people within North Korea are able to obtain so much information," Scholte said. "The North Korean people are slowly starting to understand that the difficulties they face in their daily lives are due to the regime of Kim Jong-Eun, and I would say that's a huge change."

Additionally, the increase in defectors also help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come more informed of the actual conditions inside the country, and the impoverished state that the people live in.

Many of the defectors who were part of the NKF were given multiple opportunities during the week to share testimonies from their experiences—stories of starvation, homelessness, and unreasonable arrest and detainment in concen-

tration camps.

International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ways to alleviat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nation, according to leaders of multiple organizations.

One of the ways to place increased pressure to re-list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ccording to Joshua Stanton from 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Doing so would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the regime and pressu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stop its illegal activit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Beyond international political efforts to alleviate the condition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defectors asked for prayers from the international church community.

"The fact that I am here is a result of the sincere prayers of all of the members the church on behalf of North Korea," said Young-Hee Kim, who shared her testimony at a church service that started the NKF on Sunday. Kim said her hope is that the gospel that sets prisoners free would penetrate North Korea, "just as it proclaims in Isaiah 61:1-3."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IV: "We Would Go to Any Length..." A House Church's Heart for the Lost



Pastor Keesong Lee is the pastor of the English ministry (EM) at LA Seoul Grace Church.

BY RACHAEL LEE

The value of one precious soul. That's at the heart of LA Seoul Grace Church, according to Pastor Keesong Lee. He's currently in charge of the English ministry there.

LA Seoul Grace Church is actually a "house church," a church which had been started with a few families. These core members then committed to bring nonbelievers from their families and friends — they're called VIPs.

"We would go to any length to bring these VIPs to church," he said.

Every Friday night, LA Seoul Grace Church has flock group meetings in which flock leaders meet with their flock group members, and together they share, get to know each other more deeply, and have fellowship together. This is the context in which these church members try to show their VIPs — nonbeliever family members and friends — the love of Christ in action.

"Giving rides is just the start," Lee explained. "We cook food for them and bring the snacks that they like. One particular member really likes Homerun Balls [a Korean chocolate filled snack], so

we would try to bring that every Friday. But one time, the market didn't have any Homerun Balls left, so we just bought something else. But the VIP member said, 'Where's my Homerun Balls? You said you'd bring Homerun Balls.' In a worldly perspective, someone might think, 'Why go through that humiliation and receive that kind of treatment?' But those complaints don't stop us. We would do anything we can to bring more nonbelievers to our meetings in hopes that they would know Jesus."

Every Friday, in order to make sure that everyone could make it to the flock group meeting, Lee would start out at his home in Monterey Park; then to Pasadena; then to Glendale; and finally to the flock group meeting location in La Crescenta. After the meeting is over, Lee would go back the same route — but after he drops off his family at Monterey Park, he makes one more stop to Long Beach to take a flock group member home, and then heads back home himself. By the time he arrives home, it would be 1 AM.

This is the story that depicts not only Lee, but all of those who serve as leaders of these flock groups.

He described one particular

leader who cries every Sunday at worship, praying for the nonbelievers in her family and friends and sowing in tears. It's because of a heart like this, a heart of hunger and desperation for the lost, that even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this house church has lasted for over 7 years now. They won't give up because they won't give up on these souls, Lee said.

"What about the EM?" I asked. It seemed like Lee was describing mostly the KM members. Out of 50 young adult and college members, only 8 of those are regular members of the EM. Lee shared honestly that that heart of desperation is not so apparent in the EM.

"There are a lot of reasons why though, and I can't blame them for it. For one thing, our facilities aren't that great right now; for example, we don't have a basketball court, and the kids just hang out in the parking lot. So a lot of our EM members are hesitant to invite their friends to our church because they feel that there wouldn't be much to do," he explained.

"But on the other hand, I also think that perhaps some of our EM and 2nd generation members are 'spoiled'. They've grown up in so much abundance. Abundance of spiritual investment and prayer. Abundance in material wealth and comfort. And because of it, no one can blame them when they are not hungry for the Lord or hungry for the lost."

He went on. "Isn't that the heart of a Christian? The heart of the Church? To hunger for the Lord. To bring one more lost soul back to Him. It's when we realize this, when we're poor in spirit and we cry out for His people that revival will come."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Nepal's 'Red Tape' Slows Relief Efforts in Rural Areas Affected by the Earthquake

BY PATRICK LEE

The Nepal earthquake that occurred on April 25 still has the country in need of emergency relief. Some rural areas have yet to receive aid as relief efforts are unable to reach victims because of bureaucratic red tape.

Currently, relief supplies from various organizations are held up at airports and warehouses because of inspections required by Nepalese customs authorities. Aid organizations have shared their frustration with the slow process, urging Nepal to lift these procedures for the emergency situation.

"The bottleneck was the fact that the bureaucratic procedures were just so heavy ... So many layers of government and so many departments involved, so many different line ministries involved ... We need [these supplies] up in the affected areas," Jamie McGoldrick of the United Nations told the New York Times.

The 7.8-magnitude earthquake killed more than 7,000 people. With structures leveled and power lines destroyed, the Nepalese government was unresponsive. The first two days were filled with panic as the government struggled

to assess the situation.

In order to create an effective response, government officials said that the Nepalese government needed to enforce strict rules in every aspect of government, including incoming supplies for relief efforts. Some believe that the bureaucracy's procedures for the incoming supplies is thorough in order to prevent any future accusation of hoarding relief materials.

The nation's capital of Kathmandu has received aid and volunteers from around the globe. Minendra Rijal, the Information Minister of Nepal, said that most of the major rescue work has been accomplished in the capital and nearby areas. The rest of the work in those areas could be handled by local efforts.

Rijal instead suggested that the relief workers help out other more rural areas in Nepal, where some communities are still unreachable. Some 4,000 aid workers worldwide have gone to Nepal to assist in relief efforts. Given its location and high altitude, Nepal is a difficult country for relief efforts to reach. Experts state that the beginning stages of relief, however, are crucial to the recovery of the nation.



More than 7,000 people were killed and tens of thousands more were injured in Nepal due to the 7.8-magnitude earthquake. (Photo courtesy of Hee-Chul Choi)

Decision Regarding Same-Sex Marriages to Be Made by End of June

Supreme Court Justices Consider Oral Arguments on Same-Sex Marriages

BY RACHAEL LEE

Since 2013, when the United States vs. Windsor case was heard and the third section of the Defense of Marriage Act (DOMA) was struck down as a result, the nation has rapidly moved toward greater acceptance of same-sex marriages. In less than two years, the number of states that issue marriage licenses to same-sex couples increased from 17 states to 36 states and Washington, D.C., and only 14 states do not accept same-sex marriage today.

Mos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eard oral arguments on April 28 regarding cases involved with same-sex marriages in four states—Ohio, Kentucky, Tennessee, and Michigan. The decision of the nine Supreme Court Justices that results from this hearing—which most project will be made by the end of June—will make a historic statement on the status of marriage in the country.

The two main questions: Who gets to choose what? Do the states have to recognize out-of-state marriage licenses?

The oral arguments were centered on two main questions:

1) Does the Fourteenth Amendment require a State to license a marriage between two people of the same sex? (which will hereon be referred to as Question 1)

Marriage is currently an institution that is determined at the state level, and until recently when state's amendments and propositions were struck down by federal courts, any given state's definition of marriage was determined through a bill or through a voter-approved proposition.

Hence, Question 1 could be seen as the essential issue at stake in this case, as it determines whether same-sex couples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be granted marriage licenses. Who gets to decide who I want to marry? And who gets to decide the definition of marriage for me? In other words, what is at stake in this case is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be able to choose his or her spouse, and the right of a state to decide what an institution like marriage means in that state.

2) Does the Fourteenth Amendment require a State to recognize a marriage between two people of the same sex when their marriage was lawfully licensed and performed out-of-state? (which will hereon be referred to as Question 2)

If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the answer to Question 1 is a yes, then this second question doesn't need to be answered, since same-sex marriage will be accepted on a national level in that case. But if the Court finds that the answer to Question 1 is a no, then the Justices' decision regarding Question 2 will determine whether same-sex couples married in certain states will still be recognized as married in states where marriage licenses are not issued to same-sex couple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concerns that the judges voiced during the oral arguments.

Do judges have the right to change a long-standing definition of marriage?

Justices brought up concerns involving the fact that the definition of marriage as between a man and a woman has existed for thousands of years and in almost all societies and cultures.

"How do you account for the fact that, as far as I'm aware,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re never was a nation or a culture that recognized marriage between two people of the same sex?" posed Justice Samuel Anthony Alito, Jr.

"Now, can we infer from that that those nations and those cultures all thought that there was some rational, practical purpose for defining marriage in that way, or is it your argument that they were all operating independently based solely on irrational stereotypes and prejudice?" Justice Alito asked Attorney Mary Bonauto, who took the position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 right for same-sex couples to be granted marriage licenses.

Justice Stephen G. Breyer said the view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has been the law everywhere for thousands of years among people who were not discriminating even against gay people."

"Suddenly you want nine people outside the ballot box to require States that don't want to do it to change what you've heard is what marriage is to include gay people," Justice Breyer said to Bonauto.

"If you read about the Kalahari people or ancient peoples, they didn't have a government like this," Justice Anthony M. Kennedy said. "They made it themselves and it was man and a woman."

"This definition has been with us for millennia," Justice Kennedy continued. "And it's very difficult for the Court to say, 'Oh, well, we know better.'"



Photo courtesy of Pete Jordan/Flickr/CC

Would changing the definition of marriage lead to different types of relationships being legally validated in the future, for example, polygamy?

Another concern was whether changing such a long-standing definition would present the possibility of suddenly opening it up to other types of relationships, such as polygamy. Justice Alito posed that "a marriage between two people of the same sex is not something that we have had before," and "recognizing that is a substantial break."

Hence, if same-sex marriage were to be accepted nationally, "Why [would accepting polygamy] a greater break?" he asked.

Would accepting same-sex marriages as valid lead to restrictions on religious practice?

Religious freedom was another issue that was brought up in the case that same-sex marriage is accepted as a constitutional right.

Justice Scalia was the strongest proponent of this concern. He said that when the definition of marriage is a matter of the States, exceptions could be made as "to what is required for same-sex marriage, who has to honor it, and so forth."

"But once it's made a matter of constitutional law ... Is it conceivable that a minister who is authorized by the State to conduct marriage can decline to marry two men if indeed this Court holds that they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marry? Is it conceivable that that would be allowed?"

Other religious issues were brought up. What about a religious school that has married housing? Would it "be required to afford such housing to same-sex couples?"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asked. Justice Alito asked whether the tax-exempt status of a college or university that opposed same-sex marriage would be in jeopardy of being taken away.

Does the State have a good reason to exclude a group of people from the institution of marriage?

The biggest issue that the Justices had with the position that the states should decide the definition of marriage for themselves, is whether the states have a good enough reason to exclude a specific group of people from the institution of marriage.

"I think before something as fundamental to a society and to individuals as marriage, before an exclusion of this kind can be made in that institution, the State needs some reason for that exclusion," said Justice Elena Kagan.

"Is gay marriage fundamental? ... The issue was starting from the proposition of, is the right to marry fundamental?" Justice Sonia Sotomayor said. "And then is it compelling for a State to exclude a certain group of people?"

Attorney John Bursch, who took the position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guarantee same-sex couples the right to receive marriage licenses, asserted that the need for marriage licenses arose out of a state interest to encourage the bond of biological parents and their children to be stable and long-lasting.

"If we assume a basic purpose of marriage is to encourage an emotional and rearing bon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aid Justice Breyer, how will "allowing gay people to marry ... weaken it?"

Should a voter's "feelings" come into play in decision-making?

Justice Sotomayor also disagreed with one of Bursch's arguments that a reasonable voter at the ballot box could believe that two different types of marriages—one that is focused on the bond of parents and children, and one that is focused on emotion and commitment of the couple—would

bring about different results in the family, which could lead a voter to prefer one type of family over the other.

"Why would that feeling, which doesn't make any logical sense, control our decision-making?" Justice Sotomayor asked.

Would a state be required to recognize atypical marriages including polygamous ones, or marriages between cousins, or marriages with minors, that were lawfully performed out-of-state?

In regards to Question 2, the Justices asked Attorney Douglas Hallward-Driemeier questions regarding different types of atypical out-of-state marriages, and whether any given state should be required to recognize them.

When posed with the issue of polygamy, Hallward-Driemeier responded that a state wouldn't have to recognize that marriage because the State "doesn't have such an institution," and "the State's marriage laws don't address" issues related to polygamy.

Justice Scalia said the same line of reasoning could be used for same-sex marriages. "The state says we only have the institution of heterosexual marriage. We don't have the institution of same-sex marriage," he said.

"So we have to assume that we would hold that a State has a sufficient reason for limiting marriage to opposite-sex couples," added Justice Alito. "And Mr. Hallward-Driemeier acknowledged that a State could refuse to recognize an out-of-state marriage if it has a very strong public policy against that marriage, if it's a polygamous marriage, if it's a marriage of very young individuals. So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could be something in between. So there's a sufficient reason for the State to say, we're not going to grant these licenses ourselves, but not a strong enough reason for us not to recognize a marriage performed out of state."

USCRC Pastoral Education (US 채플린 목회대학원)

USCRC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 programs provide an opportunity for ministers, seminarians and lay people to develop pastoral competency within a particular pastoral setting (usually a hospital, parish, hospice or retirement home). The CPE approach to training is based upon an "action-reflection" model of learning. Pastoral trainees function as ecumenical chaplains who provide pastoral care in assigned areas and use their experience in pastoral encounters as a basis for their learning.

USCRC CPE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nd pastoral identity and the growth of professional competence as a minister.

◆ Specific objectives of CPE are :

- To become aware of one's self as a minister and of the ways one's ministry affects people.
- To become a competent pastor of people and groups in various life situations and crisis circumstances and to develop the maturity to provide intensive and extens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 To utilize the support, confront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peer group for the integration of personal attributes and pastoral functioning.
- To become competent in self-evaluation and in utilizing supervision and consultation to evaluate one's pastoral practice. .
- To develop the capacity to utilize one's pastoral perspective and competence in a variety of functions such as preaching, teaching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 To become aware of how one's attitudes, values and assumptions affect one's ministry.

1. 미군군목(육군,공군,해군,해안경비대) 예비역 및 현역 후보자 훈련프로그램
2. 병원 원목 자격 취득과정 (CPE)
3. 양로병원, 양로호텔경영학 과정
4.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MAVNI) 지원자 시험준비반
*유학생이나 각종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한 분(남,녀)들중에 2년이 넘은 분은 소정의 시험을 통해 미군에 입대하고 영주권취득후 미군사편이나 장교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담 및 문의 310-502-9999 (박실장을 찾아주세요)

본교 : 151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 한인타운 분교 : 900 S. Westmoreland Ave, #303 LA CA 90006

USCRC Pastoral Education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5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타학교생도 환영)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전교생에 개인 랩탑 컴퓨터 수업(교과서 대체 및 방과 후 온라인 수업 보강)
- 토론 위주 수업으로 학생의 발표력, 창의성, 협동심 강화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입학 문의: (213) 400-3588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킨더 학생모집

